

예술은 결코 문화중속개념이 아니다

예술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이대동 | 문학평론가 · 서강대 명예교수

그 동안은 예술이 '문화 속의 예술'로서 일종의 종속적 개념으로 비추어져 왔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예술은 결코 문화에 종속된 것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사회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야심에 찬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예술의 창조적 의미

정부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고 한해동안 이룩한 문화적인 결실을 축하하고 내일의 문화발전을 기원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축제의식(祝祭儀式)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 경제력을 키우는데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한결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문화의 현장'을 제정해서 발표함은 물론 관련 직제를 개편해서 문화예술의 각계 대표가 모여서 스스로 문화행정을 시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새로이 출범시켰다.

그 동안은 예술이 '문화 속의 예술'로서 일종의 종속적 개념으로 비추어져 왔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예술은 결코 문화에 종속된 것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사회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야심에 찬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나 사전적 의미로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해답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마치 달무리와도 같이 명확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한 마디 말로 정의하면, 그것은 신(神)이 불완전하게 만든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완성하려는 노력이 운데서 얻어진 결과이자 그 빛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화는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금지된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낙원의 세계인 그곳으로부터 추방당한 후 시작된 '역사의 길' 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되찾기 위해 기울인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집약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는 석기시대부터 인간이 수렵생활을 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고, 농경시대에 와서 영농을 통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자 문자를 발견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벽화를 그리며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들은 물론 숨겨진 '신의 열쇠'를 찾아 불완전한 자연과는 다른 인간적인 환경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나타나는 인간의식 내지는 인간정신의 구체화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평론가인 매튜 아놀드는

“문화의 기원은 호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학 공부를 했던 20세기 미국의 최대 시인 월리스 스티븐스가 법을 실행하는 일 못지 않게 일생을 두고 시를 썼던 것은 거칠고 황량한 불완전한 세계를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인간적인 의지를 통해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그의 시에 추상적인 형이상학보다는 인간의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난히 찬란하고 우아한 색채와 이국적인 언어들이 현란하게, 그러나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내 그것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지, 공작새의 울음을.
 그것은 황혼을 슬퍼하는 울음이었던가.
 아니면 나뭇잎새들이... 불꽃속에서처럼...
 바람에 휘날려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울음이었
 던가? —〈어둠의 저주〉 일부—

여기서 스티븐스가 노래하는 공작새는 대낮에만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연의 어둠과 싸우는 인간의 문화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서두에도 밝혔듯이 문화는 인간을 자연상태, 즉 원시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간가치를 실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바탕을 둔 미의식의 추구를 나타내는 예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발전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물론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든 규범과 제도 그리고 윤리, 도덕과 종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문화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문화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문화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지만,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은 모방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즉, 예술은 자연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함께 하는 ‘창조적 모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예술은 아름다움의 창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존 키츠가 말한 것처럼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술은 무질서한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질서를 찾으려는 비전을 그 속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고있는 현실은 우리의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진실도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완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상대적인 진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 결과 훌륭한 작품이면 모두 다 현실보다 나은 어느 정도는

예술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문화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문화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문화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지만,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은 모방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완성된 질서와 ‘디자인’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낳는 일관성과 일관성을 요구하는 디자인은, 예술이 나타내고 있는 진실이 어느 정도 완전함은 물론 ‘완전한 진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은 일정한 소재를 선택해서 미리 설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예술은 근본적으로 인생과 다르다. 인생에 있어서 불완전한 ‘디자인’은 인간의 자유를 절망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예술 가운데 나타난 삶은 항상 열려져 있어서 예술가가 목적으로 한 ‘완전한 진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창조한 삶이나 현실에 대한 ‘디자인’도 결과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D. H. 로렌스가 사물을 보는 관점에 혁명을 일으킨 후기 인상파의 세잔느가 움직이는 구조를 바탕으로 그린 정물 〈사과와 물주전자〉를 두고 설명한 것처럼 예술가들이 설정한 ‘디자인’도 부르주아적 뒷에 걸려 낡은 시각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바뀌어야만 이상적인 상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예술과 도덕성〉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들 자신과 우주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도덕성을 의미한다. 세잔느의 불안정한 사과를 맞보라. 그러면 핀틴 레투르(Fantin-Latour)의

못에 박힌 사과를 소돔의 사과이다. 만일 ‘현 상태’(status quo)가 파라다이스라면 실로 그것은 새로운 사과를 맞보는 죄이다. 그러나 ‘현 상태’는 파라다이스이기보다는 훨씬 더 큰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갈 수 있다.”

예술가들이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술의 가치

만일 최고의 예술이 삶과 구별되는 어떤 것의 창조라고 한다면, 그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조리한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간을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의 제시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훌륭한 예술이 제공하는 또 다른 가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상력에 대한 하나의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고독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완전히 분열된 시대에 지식인들의 고독은 고통스러운 만큼 심각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은 감상적이고 자기연민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의 통신수단은 엄청나게 편리해졌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더 어렵게 되고있다. 우리들은 통신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가장 둔감한 사람들까지도 내향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속에서 체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점점 심하게 압박해 오는 '자아와 소외의 벽'을 뚫고 나와야만 한다. 이러한 탈출의 도구가 상상력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비판적인 압력을 받고 상대적인 진실의 세계에서 완전한 진실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작업보다 많은 부분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감정이입'(empathy)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창조물과 함께 하는 작가의 경험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나누는 감정이입은 '동정'(sympathy)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개성을 가진 인물에게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반면, 후자는 어느 정도 자의식과 초연함 그리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의 경우, 작품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지 않고 그것에 접하거나, 또는 독자로서 작중인물의 고통과 분노를 함께 나누는다면, 우리들은 품격 높은 자존심에 필수적인 인간정신의 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술 세계를 함께 경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정신을 완전히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정신을 확대하면 그것은 원래의 크기대로 수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독자와 관객들이 예술작품의 세계에서 일상 세계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우연한 돌발사건과 인간관계에 보다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자

세를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것뿐만 아니다.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예술형식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우리 자신을 교육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 미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술작품의 '절대적인 기준'을 삶으로 옮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삶의 진실이 지니고 있는 상대성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술에서 터득한 감정 및 사상교육을 법과 관계 맺게 해서 유연하고 자비로운 질서를 가진 훌륭한 사회를 열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술적인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지위와 계급 그리고 이념에 관계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인류의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와 정치권력

그러면 인류평화와 역사 발전에 이렇게 중요한 예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술가들과 그들을 돕는 예술 행정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먼저 예술가들이 취해야할 태도는 '현 상태'에 머물지 않게 기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은 하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에 도전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 당국을 포함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시대에 예술가들은 주체성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자세로서 닫혀진 공간에만 있지 말고, 지적이고 미학적인 자극을 찾아 보다 넓은 공간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넓혀 나가야만 한다.

해서 예술 작품의 '수신자'에 해당하는 우리는 예술가들이 자유로이 작품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우리 정부가 그들의 창작활동에 권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예진흥원을 예술위원회로 바꾼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예술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술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현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발전적인 예술은 창조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레나토 포치올리는 『아방가르드 예술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문화와 예술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창조적 시기가, 예술가를 궁중생활의 최고의 자리에 받아들이고 계급의 정점에 올려주는 절대군주의 계몽적 전제정치와 일치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문학과 예술의 황금시대는 반대로 순수하고 꽃내 나는 원시적인 시대라고 한다. 그런 시대의 예술가는 그가 속한 부족의 장인이자 주술자였고, 시인은 종족이나 가문의 역사적 전통과 종교적 믿음을 신화와 시가(詩歌)의 형태로 전승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진실성은 그 말이 보여주는 결과보다는 그 말들이 전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의거한다. 다시 말해, 예술가를 후원하고 예술가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예술가로 하여금 자기가 속한 환

경을 지배하는 문화와 취향의 원리에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종하도록 만들고, 또 예술가가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상태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집단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의 총체가 바로 문학과 예술을 융성하게 만들고 발전시킨 기본 전제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특권화된 상태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공중(public)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모든 의심이 없어진 것으로 단순하게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확실히 현대 예술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낭만주의라는 이름을 가졌던 문화적 혁명으로부터 시작한 현대 예술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지배적이다. 대중화 측면에서 볼 때, 낭만주의 운동이 실제로 훨씬 더 대중적이지 않았던가.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받은 공중과 지식인 계급의 후원은 커녕 적대적인 태도 앞에서도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낭만주의는 사회계층의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기대지 않고 승리를 구가한 최초의 문화운동이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낭만주의를 탄생시켰던 자유의 상태는 본질적이라기보다 표면적이며 19세기 러시아 문학은 전제주의 아래서 꽃 피었다고 말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러시아를 지배했던 짜르주의는 18세기의 군주들이 어느 정도 계몽된 전제정치와 비

스한 모습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체제의 강력한 정치압력으로부터 문화활동의 많은 영역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실제로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예술가들을 절대적인 권력의 지배 아래 두고 획일적으로 정치적인 이념만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파스테르나크가 반체제적인 작품 『의사 지바고』를 썼지만, 불행히도 그곳에서는 아무런 새로운 예술이 탄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인 민주사회에도 새롭고 창조적인 예술의 탄생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질적 예술의 가치를 소외시키는 부르주아적인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진 대중문화이다. 후기 인상파라는 새로운 예술형태를 성숙하게 만든 네덜란드의 위대한 천재 화가 반 고흐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의 전기적인 논문을 쓴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가 그를 '사회의 자살자'라고까지 말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예술이 탄생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요인이 되는가를 충격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술의 '수신자'인 대중의 의식 수준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부르주아-자본주의적 민주사회에서 훌륭한 예술작품이 이해되지 않고 퇴출되며, 상업주의와 결합한 대중 예술이 번창하게 될 것 같으면 예술을 통한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은 기대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대의 명제는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러나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대중문화가 고급 예술에 의해 질적으로 발전되어야만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술발전을 위한 주체성 있는 '문명간의 대화'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시대에 예술가들은 주체성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자세로서 닫혀진 공간에만 있지 말고, 지적이고 미학적인 자극을 찾아 보다 넓은 공간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넓혀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의 발전은 물론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문명과의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문화는 흐르는 물처럼 '비교우위의 원리'에 지배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 간의 벽을 넘어 상위(上位)에서 하위(下位)로 흐른다. 그러나 서구 문화가 순수한 문화적인 차원을 벗어나 상업주의와 결합, 패권주의적 성격으로 변신하여 건설하고 값진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인류 문화 전체의 차원에서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수 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발전시켜 온 소수민족의 문화가 단순히 산업주의로 도급한 세력 있는 문화에 의해 퇴출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교류이지,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는 아니기 때문이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열었던 미셸 푸코와 에드워드 사이드와 같은 지식인들이 서구문화가 아닌 소수민족 문화의 가치를 적지 않게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간의 대화'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정확히

다문화 시대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 문화의 체계 속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문화입국을 정치적으로만 외치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이다.

파악하고 21세기에 닥쳐올 국제 문화환경에 능동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증법적인 자세이다. 폭력과 억압을 배제한다는 것이 '문명간의 대화'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대화' 속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즉, 문명간 대화의 시대가 비록 조화로운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화특성이 타문화의 그것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킬 수 있는 차별화된 특성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문명간의 대화'에 주체가 되어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문화의 자극이나 충격을 수용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현대화시키는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토착적인 한국 불상(佛像)에 나타난 선(線)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세계적 관심을 끈 이중섭 화백의 은박지 그림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채, 그저 외국인들에게 신라금관과 고려청자만을 보여주는데 그친다면, 세계 문화인들은 우리를 결코 그들의 대화상대로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문명간 대화의 시대'를 이용해서 문화 교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외국의 저질문화가 상업주의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서 민족 정신이 담겨 있는 우리 전통문화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물론 고대에 험난한 자연을 극복해서 문화를 전달하는 실크로드를 개척한 것이 경제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문화와 상업주의가 지나치게 결합한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문화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문명간의 대화'에도 건설적으로 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미래 우리 문화발전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감수성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저급한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조악하고 후진적인 문화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화폐만으로 훌륭한 예술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정부 일각의 발상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영국의 저명한 평론가 C. P. 스노우는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말을 빌려 문화를 '인간성의 특성을 이루는 개인의 성질과 그 능력의 조화로운 개발'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 문화의 체계 속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문화입국을 정치적으로만 외치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이다. 🌈